

# 2024년, 더 큰 도약 더 좋은 고창 건설

### 전략사업 본격화 등 3대 사업 추진 세계의 보물 7개 관광코스 조성도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더 큰 도약, 더 좋은 고창’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심덕섭 고창군수가 갑진년 새해를 맞아 ‘더 큰 도약, 더 좋은 고창’을 슬로건으로 민선 8기 안정적이고 진취적인 국정운영 방침을 밝혔다.

2024년 고창군 3대 핵심사업은 ▲전략사업 본격화 ▲세계유산도시 관광명소화 ▲군민들의 실질적인 소득·생활여건 개선을 이 사업들을 중심으로 군정을 추진한다.

고창이 가진 문화·역사·예술·관광 등 매력 자산을 활용에 산업화하고, 강한 경제를 바탕으로 일

자리를 만들어 청년이 모이는 도시로 만들어 가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전략사업으로 고창의 변화가 현실로 보여질 수 있는 신활력산업단지 준공 및 삼성전자 입주, 터미널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사업, 고창(호남권) 드론통합지원센터, 고창종합테마파크, 농촌협약·농촌관광 스타마를 조성 사업에 역점을 두었다.

이와 함께 유네스코가 인정한 세계의 보물 7개(고인돌, 갯벌, 판소리, 농악,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지질공원, 동학농민혁명 기록물)를 잇는 관광코스를 마련하고 북분자유원지를 와인체험 축제공간으로 바꾸는 농촌관광스타마의 큰 그림도 그렸다.

지역농촌 3대 현안과제(일손, 소득, 복지)를 고창만의 방식으로 해결해 농민들의 실질적인 소득

증가와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심 군수는 “올해는 고창군의 향후 100년을 내다보는 큰 그림을 그리는 한 해로 만들겠다”며 “새해가 고창군의 대도약을 실현하는 변곡점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오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개막에 맞춰 고창군이 앞장서서 특별한 전북의 시대를 이끌어 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국가사업인 노을대교 착공과 목포-새만금 서해안 고속철도 국가계획 반영 등 SOC 확충에도 힘을 기울여 그간의 낙후를 벗고 ‘군민이 행복한 활력넘치는 고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 정읍시-굿네이버스,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 5년간 서남권 사무 위탁 운영관리...아동학대 예방교육 등



이학수(왼쪽 세번째) 정읍시장이 굿네이버스와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협약을 체결한 뒤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읍시 제공>

정읍시가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와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을 위한 위·수탁 계약을 맺었다.

이달 개소하는 정읍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서남권(정읍, 김제, 고창, 부안) 4개 시·군 사례관리를 통합 운영관리하는 거점기관이다.

시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난 11월 위탁운영방안을 공모했다. 이후 신청법인의 재정적 능력, 적격성, 사업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굿네이버스를 선정했다.

굿네이버스는 이번 계약 체결에 따라 5년간 사

무 위탁 운영관리를 맡아 확대받은 피해 아동의 치료, 학대 행위자에 대한 교육, 학대 피해 가정 사례관리,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 교육과 홍보사업을 하게 된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정읍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으로 서남권 아동 보호 체계를 구축해 담당 아동학대 사례가정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가능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아동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삼아 보호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 남원 코리아오픈국제틀러대회 지자체개최 국제대회지원 대상

남원시가 개최하는 ‘남원 코리아오픈 국제틀러대회’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24년 지자체 개최 국제경기 지원사업’ 대상에 최종 선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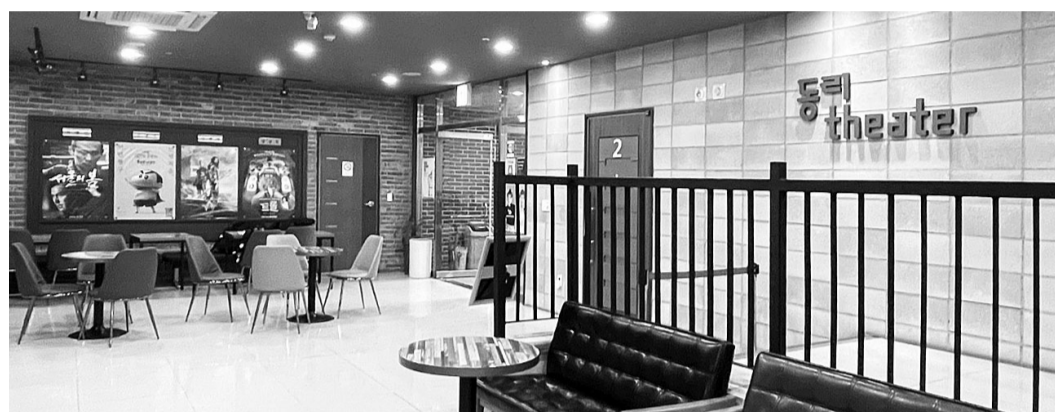
이번 공모사업은 전국 지자체에서 개최하는 국제경기대회 중 경쟁력 있는 우수 대회를 선정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국 13개 시도 33개 대회가 신청한 가운데 ‘남원 코리아오픈 국제틀러대회’를 포함 12개 시도 20개 대회가 최종 선정됐다.

체육 명품도시로서 발돋움하고자 최선을 다했던 민선 8기의 노력의 성과다.

사업 공모에서 ‘남원 코리아오픈 국제틀러대회’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프레젠테이션 발표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고 이를 통해 국비 8400만원을 지원받게 돼 성공적 대회 개최를 위한 추가 동력이 마련됐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올해 열리는 남원 코리아오픈 국제틀러대회는 17번째 개최되는 국제대회로 남원시와 남원시체육회, 틀러연맹이 합심해 사전계획 단계부터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국내외 골목 해외선수들에게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 내 남원시가 글로벌 도시로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 고창 작은영화관 ‘동리시네마’ 10일부터 운영

### 고창문화관광재단 위탁 운영

고창문화관광재단이 2024년 1월부터 동리시네마를 위탁 운영한다.

동리시네마(사진)는 개봉관이 없던 지난 2014년 지역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 해소를 위해 고창을 동리국악당 지하에 작은영화관으로 개관해 2개 상영관 89석(1관 58석, 2관 31석)을 갖추고 있다.

매점과 카페 분위기의 휴게공간도 있어 연간 약 3만여 명의 군민이 찾는 지역 내 여가문화 공간으로 자리하고 있다.

동리시네마는 지난 2014년 고창문화원의 위탁운영을 시작으로 다수의 민간 업체에서 10여년간 운영해 왔으며 올해부터는 고창문화관광재단이 운영하게 됐다. 동리시네마는 재정비를 마치고 오는 10일부터 운영한다. 영화관람료는 7000원으로 오전 9시30분부터 밤 11시까지 3~4회 상영한다.

고창문화관광재단 관계자는 “영화를 관람하고 싶은 군민의 다양한 문화 갈증 해소와 문화향유권을 높임으로써 문화 사각지대가 없는 고창을 만들어 가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 남원시, 생활인구 10만명 목표 ‘생활인구기본조례’ 제정

남원시가 전국 최초 생활인구 10만명 유지 목표 달성을 위한 생활인구 기본 조례를 제정했다.

이번 조례는 생활인구를 확대하고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해 인센티브 제공, 남원사랑시민 제도, 생활인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 시에서 추진할 다양한 생활인구 사업을 규정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시는 온라인 남원사랑시민증을 발급한 사람에게는 관광지 등 공공시설의 입장료를 남원시민과 동일하게 감면·할인하고 생활인구의 확대를 위한 기념품, 숙박권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

획이다. 또 생활인구 지원센터를 설치해 남원 살아가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생활인구 유지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그간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생활인구 정책알림 서비스를 개시, 4000여명의 정책 고객에게 지역 방문을 위한 행사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생활인구 유지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 농협은행 정읍시지부 “이웃사랑 실천 앞장”

### 정읍시 연지동·수성동 행정복지센터에 300만원 지정기탁



농협은행 정읍시지부가 정읍시에 300만원 기탁했다.

농협은행 정읍시지부(지부장 이재연)는 최근 희망2024 나눔캠페인에 동참하고 싶으며 연지동 행정복지센터에 200만원, 수성동 행정복지센터에 100만원을 지정기탁했다.

이재연 지부장은 “연말연시를 맞아 취약계층을 위한 성금을 모금한다는 소식을 듣고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기탁을 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나눔과 관심을 통해 이웃사랑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고명석 연지동장과 김행숙 수성동장은 “나눔을 실천해준 농협 정읍시지부에 감사드린다”며 “소외된 이웃이 없는 행복한 연지동과 수성동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이호동 김박소영 그림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려나/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려나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어느나/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 이호동 <달이 되려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복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